

<서평>

## *The Threat to Faith: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Re-Examination of 2 Thessalonians 2*

(Charles H. Griblin,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7)

김형동\*

본 저서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대한 연구이다. 예수회 신부 기블린(Charles H. Griblin)의 로마의 교황청 성서연구원(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박사학위논문(1966)으로 1967년에 출판되었다. 저자가 밝히는 데살로니가후서의 삶의 자리는 신앙에 대한 위협이다. 신앙을 위협하는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는’ 힘으로서,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배교를 동반하면서 불법한 자의 나타남을 그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데살로니가후서가 바울의 진정한 편지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데살로니가교회에서 언급된 문제들에 대한 석의적 접근이 데살로니가후서의 진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제안한다. 더 나아가 그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과 사도의 종말론적 혹은 묵시-종말론적 신학과의 통합을 시도한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서론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연구의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κατέχον/-ων*(카테콘) 해석의 지금까지의 연구의 방향을 재검토한다. 또한 저자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일반적인 해석의 두 방향을 검토한 후 이 둘 사이의 긴장에 관하여 본문의 통일성에 기초한 변증법적 이해를 제안하고, 본문의 구조와 번역을 제시한다. 주목할 것은 카테콘의 해석에 있다. 저자는 *κατέχον(-ων)*을 각각 ‘사로잡는 힘’(seizing power)과 ‘사로잡는 자’(seizer)로 번역을 하고, ‘불법의 사람’,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라는 번역은 비록 오역은 아니지만 종말론적 상황에서 보다 정확한 번역인 ‘반역의 사람’, ‘반역의 비밀’, ‘반역자’로 번역

\* Drew Universit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부산장신대학교 신약학 교수.  
hd9191@hanmail.net.

하기를 제안한다.

2부는 본문의 석의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전체를 주석한다. 2부는 이 책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사전적 증거, 문법적 분석, 데살로니가 교회의 근본적으로 건장한 여건에 대한 고려, 그리고 바울의 논증의 방법에 대한 숙고는 보다 균형 잡힌 견해를 제공한다. 저자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전체를 하나의 기본 단위로 간주하며 그것의 일관성을 논증하고, ‘교리적’ 부분과 ‘권면적’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또한 반복적인 묵시문학적 사고의 흐름이 목회적 관심 또는 목회적 반응에 속해 있음을 제시한다. 바울의 관심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나 혹은 심지어 주의 오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교회의 견해를 교정하는 목회적 문제에 있다는 것이다.

3부는 본 연구가 가지는 신학적 함의성을 다룬다. 저자는 다른 바울 서신들과의 관계에 관심함으로써 전반적인 바울신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바울 신학 전체의 기본이 되는 ‘종말론적 원칙’(eschatological principle)을 제시한다.

## 1. 1부 서론(Introduction)

저자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연구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살피면서 세 가지를 언급한다. 첫째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대한 석의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 연구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데살로니가후서 2:1-12에서의 카테콘과 같은 특정한 문제와 바울의 종말론에 관련된 해결책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큰 불만이 있음과, 셋째는 카테콘과 같은 특정한 문제 외의 여타 다른 구절들(5절, 6절, 7절)이 등한시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저자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 세 가지 대표적 견해를 재검토한다. 첫 번째 견해는 ‘역사적’(혹은 ‘정치적’) 해석으로 터툴리안 이후 가장 오래되고도 지속적인 견해이다. 최근에는 이 견해가 열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적시한다. 그 견해에 따르면 *κατέχων* (막는 것)은 로마제국 혹은 시간적 영역 내의 법과 질서를 대표하는 어떤 유사한 제도로, *κατέχων*(막는 자)은 로마 황제 혹은 보호 제도의 어떤 인간적 대표로 간주되었다. 유대인들로부터 보호받은 바울 자신의 경험(행 18:12; 21:27; 26:32)과 정치 권력에 대한 그의 견해(롬 13:1ff.)가 그 근거로 주장되었다(예, 부셋, 보르네만, 폰 뉘쉬츠, 쉘라터, 고구엘).

하지만 저자는 *ἔχω* 동사에 결합된 전치사 *ὑπέρ*와 *κατά*는 거의 서로 반대

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울서신의 다른 곳에서도 권위적 행동을 나타내기 위해 바울이 *κατέχω*를 결코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ὑπερέχω*를 사용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로마서 13:1-7이 로마서 원래의 본문에 덧붙여진 후대의 본문이라는 점은 이 견해의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신화적’ 해석으로, 묶여 있다가 마지막 때에 잠시 풀려났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할 원시적 괴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카테콘을 이해한다(디벨리우스). 이 해석은 카테콘이 천사장 미가엘이라는 몇몇 가톨릭 진영에서 여전히 선호되는 입장보다는 진일보한 해석이지만, 바울이 이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히 언급하는 특정한 정황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진다.

세 번째 견해는 ‘사도적’ 해석으로 바울 자신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다. 쿨만(Oscar Cullmann)에 의해 제기된 이 해석에 따르면, *κατέχων*은 이교도들을 향한 사도의 복음전도를 가리키고, *κατέχω*은 자도 자신을 가리킨다. 이러한 해석은 본문 자체 내에서 난관에 부딪힌다. ‘왜냐하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나니’는 사도의 활동과는 정반대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파루시아 전에 죽을 수 있다는 바울의 추측에 대한 빌립보서 1:23에 호소하는 쿨만의 입장은 이 시기에 바울이 분명하게 공감하는 정반대적인 소망(살전 4:13-18)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울은 그 자신의 사역에 관해 그렇게 비밀스럽게 말하지 않는다(크리소스톰, 리고).

저자는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일반적인 해석의 방향을 검토한다. 주석가들은 바울이 파루시아 혹은 주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함으로써 데살로니가교회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기를 원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하지만, 해석의 방향성에서 두 가지 주요한 의견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목회적 관심으로 긴장된 종말론적 기대와 구원을 얻음에 대한 걱정을 진정시키는 것이 전체 편지의 목표라고 간주한다(폰 돕쉬츠).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시간에 초점을 두어 마지막 때의 징조에 관심을 둔다(리고). 예를 들어, 쿨만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전체가 정해진 때, 정확한 결정적 순간을 언급하고, 2장은 마지막 때의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전 시기가 데살로니가교회가 믿는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둘 사이의 긴장에 관하여 본문의 통일성에 기초한 변증법적 이해를 제안한다. 즉 목회적 정황과 종말론적 가르침은 서로를 수반하는 유기적 관계로 종말론적 가르침은 목회적 관심에 속해 있음을 주장한다.

## 2. II부 석의(Exegesis)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두 가지 이미지가 두드러진다. 3-4절에서 장차 성전을 더럽힐/찬탈할 자에 대한 스케치가 나타나고, 8-10절에서는 불법한 자의 파괴를 말하는 일종의 거룩한 전쟁에 대한 이미지가 나타난다. 거룩한 전쟁은 두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적을 섬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거나 안전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 두 이미지는 그 사이에 놓인 구절, 특별히 6절 후반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반역자’에 의해 연결된다(3a, 8c 참조). 이 둘 사이에 놓인 구절은 주로 현재를 다루고 있고, 묵시문학적으로 묘사된 과정의 끝자락에 나타날 것과 연결된다.

3-4절은 다니엘서에서의 반-하나님적 인물에 기초한 반-신앙적 인물을 제시한다. 이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정반대적 의미로 자신을 하나님에 반대하는데 세우는 반-신앙적 인물이다. 저자는 반-신앙적 인물을 구체적으로 거짓 선지자, 즉 뛰어난 거짓 선지자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의 나타남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살후 2:9)의 사탄의 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의 구체적 정황에 직면하였다. 파루시아에 관련된 그의 가르침에 대한 혼선에 대해 ‘악’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을 반대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배교가 일어남으로 사람 대 하나님을 대표하는 고전적 구성 안에서 불신앙의 과정이 명백하여진다. ‘성전/성소’에 대한 언급은 주의 오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영역으로, 어떤 의미에서, 그 영역은 엄격히 지상의 것은 아니지만 사람(믿거나 믿지 않는)이 관여되는 곳을 가리킨다. 따라서 교회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하는 것이 최상이고, 배교와 불법의 사람은 하나의 구성단위로서 ‘불법의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배교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배교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으로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구별을 함의하기에 신앙과 불신앙, 참된 예배와 우상숭배의 분리를 수반한다.

본 연구에 있어서 카테코 동사에 관한 어휘사전적 자료 연구는 기본적이고, 필연적이다. 먼저 칠십인역(LXX)에서 κατέχω 동사는 히브리어 חָזַק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차지하다’ 혹은 ‘사로잡다’는 뜻을 가진다. 때로는 사람이 분노나 고통, 환난과 역경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삼하 1:9; 시 119:53; 렘 13:21). 신약성서에서도 κατέχω 동사는 ‘불잡다’(hold on to)와 ‘차지하다’(possess)라는 의미를 가지지 ‘막다’ 혹은

‘억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종교적 문제를 다루는 고전 문헌과 그리스 문헌에서도 카테코 동사와 파생어인 *κάτοχοι*는 자주 *καταδέω*(묶다) 동사와 짝을 이루어 ‘사로잡다’ 혹은 ‘구속하다’라는 뜻을 함의하는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종종 *καταδέω*의 동의어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κατέχω* 동사는 이교도의 종교적, 실천적 관행을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그 어떤 것 혹은 사람에 의해 사로잡히는 현상을 함의한다. 이 용어의 상서롭지 못한 함축적 의미와 그것의 갑작스러운 나타남은 이교적 예배 행위, 특별히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장악하고 있거나’ ‘사로잡고’ 있는 유사-카리스마적 행위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κατέχω* 동사와 관련된 데살로니가후서의 삶의 자리는 신앙에 대한 위협이다. 저자는 *κατέχω* 동사가 가리키는 히브리어 *חָסַד*는 적대적 함의성을 가지고, 명사형 *חַסָּד*는 아하스왕을 지칭한다고 주장한다. 아하스는 배교와 이스라엘의 배교의 원인이 되는 고전적 예가 되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교회의 신앙에 대한 위협은 박해와 환난으로 다가왔고(살후 1:4; 살전 1:6 참고), 이로 인해 주의 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그것으로 인한 미혹이 생겨났다(살후 2:3). 영적 카리스마를 가진 자들로 인하여 공동체 내에서 무질서한 현상이 나타났다. 주의 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관련되어 사도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 영적인 힘을 가진 *ἄτακτοι*(무질서한 자들/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를 비판한다. ‘영이나 또는 말이나 또는 우리에게서’라는 표현은 전달의 양상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가 연관되고, 아탁토이와 사도 자신 간의 분명한 대조는 사도의 변명과 아탁토이의 문제와의 관련성을 드러낸다.

주목할 것은 저자는 본문에서 1988년 홀란드가 그의 저서, *The Tradition That You Received from Us*가 제시한 묵시문학적 도식(apocalyptic schema)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래
배도(2:2)	불법의 사람(2:3-4)
사로잡는 힘(2:6)	사로잡는 자(2:7)
불법의 비밀(2:7)	불법한 자(2:8)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미래에 일어날 것은 현재 활동 중인 악한 힘의 인격화된 실체로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는’ 힘으로서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배교를 동반하면서 불법한 자의 나타남을 그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점을 6-7절의 구조와 스타일의 특징을 통해 논증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6-7의 구조와 스타일의 특징들은 τὸ κατέχον의 부정적 의미와 이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전달하려고 했던 생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현재		미래
<b>καὶ νῦν</b>		ἐν τῷ αὐτοῦ καιρῷ
<b>τὸ κατέχον</b>		αὐτὸν
<b>οἶδατε</b>	εἰς τὸ	ἀποκαλυφθῆναι

6절은 현재와 미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시간적 요소가 관건이다. 즉 “현재 우리는 τὸ κατέχον을 안다”와 “그의 때에 그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두 문장이 εἰς 부정사로 연결된다. 6절 하반의 특별한 정황이 무엇이든 사이에 εἰς 부정사 형태는 어떻게든 미래(성)를 함의하고 있다. 즉 현재적 실재가 드러나게 될 실재와 존재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면에서 αὐτὸν(남성)은 τὸ κατέχον(중성)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들의 문법적 불일치는 τὸ κατέχον과 αὐτὸν을 완전히 다른 별개의 요소로 이해하게 했다. 하지만 저자는 이 둘이 분명히 구분된 실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 역학 관계와 공통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 형식상 다른 인물이 ‘불법의 비밀’(2:7)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마가복음 13:14이 제시된다. ‘멸망의 가증한 것’(중성, τὸ βδέλυγμα)이 서지 못할 곳에 선(남성분사, ἐστηκότα) 것을 보거든 …”에서 중성 명사, “멸망의 가증한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물의 역할, 곧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나타낸다. 그리고 남성 분사는 마가의 종말론적 강화의 주된 인물인 그리스도에 대한 대항마로서의 이상적 존재를 나타낸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어서도 인물적 요소는 신앙에 적대적인 행위의 가면을 벗겨냄과 관련하여 등장한다. 비인물적 요소는 정황(배교) 혹은 그 인물의 역할을 강조한다. 배교와 ‘불법의 사람’은 공동체 너머의 반신앙적 행위라는 전반적인 정황을 나타내고(3절), 카테콘(-ον/ων)은 공동체 내의 현재적 위협을 나타낸다(6-7절). 다시 말해서, τὸ κατέχον과 αὐτὸν 사이에 문법적인 부조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현재와 미래 사이의 묵시문학적 도식을 나타내기 위한 사도의 의도적인 표현이다. 불법의 비밀에 대해 모호하게 아는 현재와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미래와의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는 ‘αυτο’ 대신에 남성명사 ‘αυτον’을 사용한다.

7a는 6a, 6b의 상징적 요소들을 같은 연속성 안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주제적 정황을 마련한다. 즉, 배도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도는 그것이 초자연적인 것, 문맥상으로 볼 때, 악하고 악마적인 것(9절)임을 암시한다. 앞 절에 있어서는 그것은 단지 τὸ κατέχων으로만 알려졌지만 이제 그것은 그것의 궁극적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인격화되어야 한다. 종말의 절정이 주 예수(인물)의 승리로 제시되듯이, 배도의 비밀은 배도의 사람으로 구현됨으로써 그것의 구체적이고 인격화된 성취를 가져온다.

7b에서 τὸ κατέχων은 ὁ κατέχων으로 인격화되었다. 하지만 그는 ‘사라질 때까지’(ἕως ἐκ μέσου γένηται) 존재할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어 표현 ἐκ μέσου는 그 자체로도 옮김을 의미한다. 따라서 ἐκ μέσου γένηται는 옮겨짐이 아니라 현재의 위치에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불법의 비밀이 다음 절에서 제시하는 “불법한 자”가 나타날 때까지만 활동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ὁ κατέχων은 ‘막는 자’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불법한 자’를 예시하고 고대한다. 사도는 그가 사라지리라고 언급함으로써 ὁ κατέχων의 활동의 제한적 성격을 강조한다. ὁ κατέχων을 ‘막는 자’로 해석하여 성령이나 교회로 이해할 경우 교회나 성령이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사라진다’는 견해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저자는 ὁ κατέχων을 신앙을 대적하는 사이버적 예언자적 인물로 간주한다. 그는 뛰어난 거짓 예언자로 그의 영적 힘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그들이 사도들로부터 배운 전승을 굳게 잡을(κρατείτε: 현재명령법) 것을 권면한다. 정확히 그는 통제하려는 힘을 가진 자이다. 그는 미혹과 사도적 가르침을 오도함으로써 신앙에 위협이 되는 자이다. 묵시적 드라마의 도식적 차원에서 볼 때 그는 사탄의 활동을 따른 현재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신앙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다.

### 3. III부 신학적 함의(Some Theological Implications)

저자는 사도의 복음전도에서 메시아적 성취의 개념을 발견한다. 메시아적 성취의 조건에는 부정적인 측면의 메시아적 필연(messianic necessity)과 긍정적인 측면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라는 요소가 포함된다. 저자는 그것을 종말론적 원칙(eschatological principle)이라는 하나

의 원칙으로 제시한다.

주를 섬김에 있어서 모든 종류의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그러나 동시에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새창조 안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영광 혹은 주권)는 온전하게 실현될 것이다(262).

저자는 이 종말론적 원칙이 바울신학 전체의 기본이 되고, 그것을 적용하여 데살로니가후서를 나머지 바울서신과 합리적으로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원칙이 변화와 발전이라는 면에서 연구된다면 로마서 이후에 기록된 후기 편지들의 진정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한다. 더 나아가 저자는 이 종말론적 원칙이 바울의 신학을 종합하는 기초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신약신학을 종합하는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분명히 단어와 주제에 대한 연구를 넘어 바울신학의 발전을 연구하기 위한 뼈대를 제공하고자 이러한 방향의 연구를 모색한다.

더 나아가, 저자는 종말론적 원칙의 예시를 따라서 바울의 구원론이 종말론적 원칙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저자는 부활, 하나님의 주권, 구약성서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바울의 구원론의 핵심적인 특징들이 종말론적 원칙에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한다. 먼저 부활은 새창조의 동의어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무능을 강조하는 바울의 변증법적 신학에서 나타나고, 약속의 성취라는 주제는 성령의 신학 덕분에 새창조의 주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또한 바울의 목시문학적 이미지로부터 그 이미지를 초월하면서도 유효한 종말론적 원칙을 관념화/추론하는 문제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목시문학적 장르는 바울의 신학을 비역사적이거나 신화적으로 만들지 않고서도 바울신학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신학적 원칙을 관념화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말론적 원칙은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의 발전을 파악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고, 왜 파루시아의 시간의 문제가 바울의 사상의 실체(핵심)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지를 보다 분명하게 보게끔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종말론적 원칙을 기독교적 차원에 한정시키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속에서 폭넓게 이해해야 함을 제안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바라본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바울에게서 자주 등장하지 않지만,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적 개념을 새로운

존재 양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의해 성취된 새 창조,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힘을 구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에 있는 것 같다.

<주제어>(Keywords)

κατέχω, κατέχον(-ων), 카테콘, 데살로니가후서 2장, 묵시(문학)적 도식.  
κατέχω, κατέχον(-ων), 2 Thessalonians 2, apocalyptic schema.

(투고 일자: 2020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20년 8월 28일, 게재 확정 일자: 2020년 10월 16일)

<Abstract>

**Book Review - *The Threat to Faith: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Re-Examination of 2 Thessalonians 2***  
**(Charles H. Giblin,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67)**

Hyung Dong Kim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Charles H. Giblin's *The Threat to Faith* presents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re-examination of 2 Thessalonians 2. This book consists of three parts. Part One investigates the state of the question; Part Two contains the exegesis of 2 Thessalonians 2 and concludes with a commentary on the whole of that passage; and Part Three presents fuller theological reflections consequent on the exegesis.

The situation referred to at 2 Thessalonians 2 is a case of deception or serious danger of deception regarding Paul's teaching on the day of the Lord. The *Sits im Leben* of 2 Thessalonians is the threat to faith. With regard to specific problem like the κατέχον/-ων, there is discontent. The general meaning of 'to restrain' or 'to hold back' is defended for κατέχω. But Giblin demonstrates that κατέχω is used in the sense of "holding fast" though certainly not "holding off." At the same time, he argues that the term alludes to pagan cult practices, particularly that of pseudo-charismatic activity in which something or someone "takes hold of" or "seizes" another. He demonstrates the apocalyptic schema on the 2 Thessalonians 2:6-7, which is one of the most baffling and difficult passages in the Pauline Epistle. 2 Thessalonians 2 shows there is a progression in the law of apocalyptic dialectic. τὸ κατέχον must be personalized as well as concretized in order to express its ultimate self-evidence. This figure does not "hold it back" but rather prefigures and anticipates the revelation of "the lawless one."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κατέχον(-ων) is a threat to faith.

With regard to some theological implications, Giblin situates 2 Thessalonians in the main current of Paul's theological thought, and argues that this letter authentically represents Paul's thought. He proposes "the eschatological principle," which is basic to Paul's theology as a whole. He exemplifies how the eschatological principle could be engaged with Paul's soteriology, apocalyptic, and the understanding of Paul's theological development.